

나주라이온스클럽 복지시설에 카니발 차량 기증



국제라이온스355-B지구 나주라이온스클럽(회장 김원영)은 최근 라이온스 국제본부 및 지부와 공동으로 나주 사회복지법인 '수산원'에 3500만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을 기증했다.

중고생 주축 '풍암동 청소년 방범대' 발대식



중·고교생으로 구성된 '풍암동 청소년 방범대' (대장 김인성)가 24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주민센터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풍암동 청소년 방범대 제공>

담양 유당갤러리서 광주전남보도사진전 3차 전시



2019 광주전남보도사진전 3차 전시가 지난 22일 담양 국제청소년교육재단 내 유당갤러리에서 개막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참가정 실천 운동 광주시지부 '희망전진대회'



참가정 실천 운동본부 광주시지부는 지난 23일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북구 참가정 실천 희망전진대회'를 열고 모범 가정을 시상했다.

<참가정 실천 본부 제공>

“왜 사서 고생하냐고요? ...꿈이 날 부르니까요”

에세이 '사막을 달리는 간호사' 펴낸 호남대 출신 김보준 간호사

소아암 환자 후원 위해 도전 사하라사막 마라톤 완주 책으로 32개국 배낭여행 ...삶이 도전 28일 호남대서 후배들과 만남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잊고 있었던 꿈과 목표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나눔과 봉사를 다시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독자들이 소중한 자신의 꿈을 떠올리는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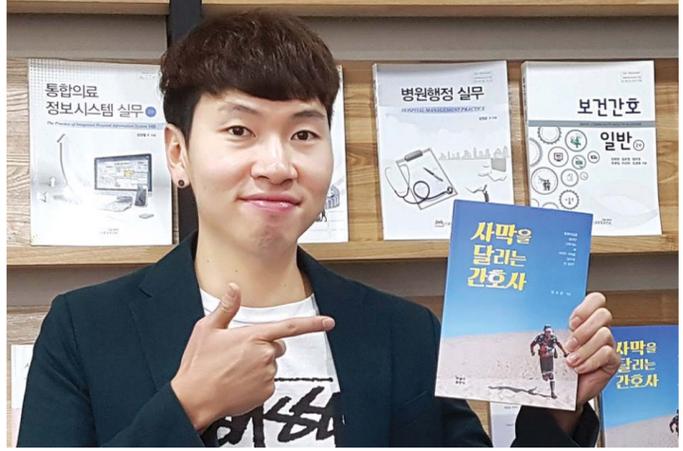
호남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온 뒤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김보준(28)씨가 최근 사하라사막 마라톤을 완주한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사막을 달리는 간호사' (포널스출판사 펴냄)에는 김씨가 지난 2017년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1주일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열린 '2017 사하라 사막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250km 풀코스를 완주한 이야기가 실렸다.

울산에서 나고 자란 김씨는 2009년 호남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김씨의 대학 생활은

'봉사'로 요약된다. 현대기아차 해피부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에 뽑혀 인도에서 의료 봉사를 했고 외교통상부, 삼성그룹, KT 등에서 후원하는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2013년 꾸러진 간호학과 봉사 동아리 '사랑합니다'의 창단 멤버이기도 하다.

김씨는 여느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나온 뒤 취업의 길로 갔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 전담 중환자실 간호사로 2년 4개월 간 일하던 무렵 '버킷리스트'였던 세계여행의 꿈을 위해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김씨가 지금까지 배낭여행한 곳은 32개국 183개 도시이다. 여행을 위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고 히말라야 안 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등정, 아마존에서 살아보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등 다양한 도전을 하며 20대를 보냈다. 솔한 도전에서 그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소아암 환자를 위해 250km 거리 사하라 사막을 마라톤으로 완주한 것이다. 그는 소아암 환자를 후원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라톤 참가 전 온라인 모금운동(크라우드 펀딩)을 벌였고, 84명이 뜻을 함께 해 300만원을 기부했다. 모금 호남대는 완주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느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마라톤 초보인 제게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무모한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일이 끝난 후 틈틈이 몸을 만들었어요. 2년 동안 꾸준히 훈련하자 속도와 체력이 붙었고 춘천과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어요.”

김씨는 사하라에서 음식·침구류 등 필수장비(15kg)를 매고 '죽음의 레이스'를 펼쳤다.

그는 250km를 완주하며 1주일 간 펼쳐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김씨의 책에는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경험한 병원이야기와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사하라 사막을 달리게 된 서연, 꿈을 찾아 떠난 사막에서 경험한 일화 등이 담겨있다. 김씨는 오는 28일 호남대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려줄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어민·외지인 함께 가꾸는 '우리 바다'

한전 보성지사 임직원·석간마을 주민 해변 정화 활동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사(지사장 신영대)와 보성 석간마을(어촌계장 오숙자)이 지난 21일 석간마을 앞 해변을 청소하고, 외지인들이 찾게 쉽게 길을 정비하는 등 '바다가꿈' 활동을 펼쳤다.

'바다가꿈'이란 어민과 외지인이 함께 쓰레기, 어구 등으로 지저분한 어촌 해변을 가꾸고, 간단한 공간을 마련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 어민과 외지인이 지속적으로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말한다. 이날 '바다가꿈'에는 신영대 한국전력 보성지사장

등 직원 19명과 오숙자 보성 석간어촌계장 등 주민 25명이 참여했다.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사와 보성 석간마을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소개로 1사1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량만에 자리한 석간마을은 30ha에 이르는 마을 갯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꼬막 치매를 뿌리고, 낙지 목장을 개설하는 등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낙지, 꼬막, 새조개 등이 유명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전남도 6만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최선”

정행식 신임 전남사회복지사회장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도민도 행복합니다. 사회복지사 6만여명의 권익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4대 전남사회복지사회협회장에 정행식 안도군장애인복지관장이 취임했다.

지난 22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의회 전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이혜제 의원,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회협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 선서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 사회복지 대체 인력제도 도입 등에 앞장 선 이주재 전 회장에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인사

-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장 김보업 ▲대단위간척처장 황동주 ▲안전진단사업단장 윤홍일 ▲해의사업처장 유전용 ▲수자원기획처장 이용구 ▲재난안전처장 오창조 ▲지하수지질처장 서상기 ▲농어촌에너지처장 조현욱 ▲어촌수산개발처장 김태기 ▲경영지원처장 정인노 ▲농지은행처장 구길모 ▲기금관리처장 성도남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겸 연구기획실장 송기현 ▲농어촌연구원 지역기반연구실장 윤석환 ▲농어촌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실장 최강원 ▲충북지역본부장 박종국 ▲전북지역본부장 이강환 ▲전남지역본부장 박종호 ▲제주지역본부장 현상훈 ▲화안사업단장 전창운 ▲천수만사업단장 한오현 ▲금강사업단장 양정희 ▲세만금강사업단장 김병수 ▲영산강사업단장 윤석근 ▲세만금강사업단지사업단장 조석호 ▲토지개발사업단장 김준재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광주고용센터소장 이준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이후송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3 FAX 062-222-4938, 222-4918

호축

▲허성균(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미연씨 장남 민(순천울산초 교사)군, 김영군·신행성씨 차녀 민진(강진여중 교사)양 =30일(토) 오전 11시 50분 덕에이웨딩홀(광주교직원공제회관). ▲남정현(전 통계청)·이복희씨 장남 남영우(건우)군, 위향님씨 막내 정형숙양 =31일(일) 낮 12시30분 광주상무리조트웨딩홀 2층 데이지홀.

중친회

▲진주정씨 고창중친회(회장 정금렬) 정기총회=28일(목) 오전 10시 고창읍 성두리 태흥뷔페 063-564-2147. ▲진주정씨 진양군 중장공파(회장 정익주) 대총회 정기총회=30일(토) 오전 11시 함평군 월야면 돈목회관.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시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사업=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

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

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전남복지재단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전남 신입생 모집=전남도내 청소년(취약계층 우선 선발) 영화·요리·뮤지컬·국악 강좌, 참가비 무료. 문의 061-287-8152. ▲국가무형유산 각설이품바·타령장구·옛가위춤 등 수강생 모집(각설이·연희놀이전수차 최연홍)=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수업(4월 개강), 광주 금남로 4가역 인근 파랑새소극장 010-3620-4341. ▲모디인패션디자인학원 국비지원·일반교육생 모집=패션의류제작·양장기능사자격증·패션디자인·패션일러스트레이션·패션CAD 062-234-5300. ▲광주불교문화대학 대학원 신입생 모집=31일까지 모집, 대학(기초교리):매주 화요일 오후 2시~7시, 대학원(경전공부):매주 수요일 오후 2시~7시, (사)광주불교교육원 사무국 062-228-9098.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분부. 062-515-

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부음

▲김다례씨 별세, 오주일(서울시스템기술(주) 대표이사)씨 모친상, 발인 26일(화) 오전 8시 광주시 서구 매일동 VIP장례타운 VVIP 101호 010-3609-5707. ▲이이례씨 별세, 이동우(매일경제신문 호남지사장)씨 모친상, 발인 26일 오전 8시 담양 제일장례식장 1층 061-382-1111.

Advertisement for '삼가 故人의 冥福을 봅니다' (We look for the afterlife of the deceased) with details for two famil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그린장례식장' (Green Funeral Home).